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서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감정을 담은 SHIRTS를 본적이 있습니다. 성도한 분이 fairground에서 옷 장사하시는 데, 그분이 파는 셔츠 중 하나였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것들이  frustration, exhaust 같은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중하고, 근엄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맞나요? 언젠가 한 책에서 파안대소(破顔大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을, 본적이 있었는데, 약간 충격이랄까? 좋긴 좋은데, 뭔가 좀 가볍다? 낯설다?는 느낌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1장 후반부터 죄(罪)를 말했고, 계속 그 주제를 지속하며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함의 문제는 일생일대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길이,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에 접근(接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신득의,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어떤 정서를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 복음을 받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첫 반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4-5절을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우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 그 문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6:23) 그러나 회개한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福音)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 구원받고, 의롭다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복을 받은 자들이며, 복된 자,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의 전반부가 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전제에서부터 시작한 3가지 말씀이 오늘의 중심되는 우리의 정서입니다. 3가지는 무엇일까요?

1. 평화입니다.(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화평, 영어에는 peace이고, ‘에이레네’인데, exemption, harmony, security, safety 같은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론 살롬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화평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가난과 굶

주림, 질병, 지진, 기후변화, 전쟁과 같은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패권(霸權)을 차지하려는 목숨을 건 전쟁으로 인해 세상엔 참된 평화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는 단 한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고, 가졌다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 이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 ‘에이레네’ eirene (히브리어로는 샬롬)는 갈등이 없다는 의미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화목한 관계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이제는 그 평화를 누리지고 합니다. 엔조이(enjoy) 하자고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 상태를 엔조이 할 것입니다. 만세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광복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었는데도 밖에 나와 만세를 못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억울하죠? 억압에서 벗어난자들의 환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2) 이 평화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된 것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平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봐주는 동안 누리는 평안입니다. 고요한가운데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아래, 율법아래 있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법입니다. 위선은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곧 실수를 합니다. 애써서 완전을 구하지만 곧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인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내 품에 안겨! 내가 대신 너를 업고 가지!

저는 꿈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달라집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됩니다. 장교복을 입으면 장교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 옷은 중요합니다.

프란시스 쉐퍼는 그의 책 the finished work of Christ의 P 151쪽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한 소녀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너는 칭의가 무엇인지 아니? 그 소녀는 대답하기를 “네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마치 제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칭의란 내가 마치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3)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입니다. (1,2)

이 평화는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행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 Grace zone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왕의 접견실>, <하나님이 계시는 그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과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4:16)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나 같은 놈이 주님은 무슨 주님. 좀 하다 또 다시 실망하지 말고 애초에 포기해버려’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서글퍼 심히 상한 마음으로 딸, 희원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달리는 차안 극동방송에서 은

은하게 올려퍼진 찬송이 바로 469장이었습니다. “이 땅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깨지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모난 제 심령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 험한 길 이 땅과 길만 바라 보니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할 것 같으면서도 못하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모른척하고, 그런 내 모습만 바라보니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친구삼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도 포기치 않으시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치 않으시니 그것이 우리의 평화의 근거입니다. 아멘.

지금 이 평안(平安)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 즐거움입니다.(2-5,11)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이 없다면,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즐거움을 찾아나섭니다. 여행의 즐거움, 운동의 즐거움, 배움과 독서의 즐거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즐거움, 등 이 땅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백성은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예배는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다 즐거운 일입니다.

Charles swindol 목사님은 본문에서 3가지 즐거움의 수준을 봅니다.(로마서 PP 84-86)

1)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2절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만상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기후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짙은 국화(Chrysanthemum)에서, 사시나무 떨어 듯한다는 노란색 사시나무(Aspen)의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는 것도 즐거움인데 하나님 자신이야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도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구절을, NASB 번역에서는, we **exult** in hope of the glory of God. exult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크게 기뻐하다, 환희하다. 기뻐 날뛰다’의 의미입니다.

2) 환란 중에 즐거워 함(3-10)

그리스도인은 바라는 가운데 즐거워 할뿐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물론, 환란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그 환란을 치루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환란은 이겨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환란당하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기조차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선한 일을 하고도 채찍질을 당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행5:41)”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란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환란엔 일련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인내-연단-소망입니다.

tribulation, patience, experience, hope(NIV) sufferings- per/severance- character-
hope(KJV) 환란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 기죽지 않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3)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함(11)

스원돌목사님은 이 기쁨을 최상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기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의 기쁨이라는 것 말입니다. joy in God.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룸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
쁨을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소유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시편16:11절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영국속담(英國俗談)에-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일 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
려면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섬김의 행복을 최선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 돈을 향해 나아가면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부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그제
안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모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
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10)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3. 사랑입니다.(5-8)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
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
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정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며 삽니다.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기실 우리의 삶의 목
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준말 ->삶). 사랑은 사람의 삶의 내
용입니다. (단어나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말해보세요 사람, 사랑- 한글에서만 가능) 우리는 사랑
받은 존재로 태어났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구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바로 배우게 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5)

부어졌다라는 말은 pouring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쏟아 넣다’는 'ekkeo'입니다.

주석자 데니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 속에 흐른다’고 주석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강이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표현합니다.

올드 복음찬송의 멜로디중 하나,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하수(地下水)같이, 큰 산의 맥(脈)같이, 내 마음에 흐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8)

본문에는 3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6,8,10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당시의 시간대를 표현한 것인데, 다른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타이밍입니다. 다들 좋은 때에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고, 최악으로 가면 서로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우릴 사랑하신 것입니다.

3가지 상황이라도 단 한 가지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KJV, Nasb는 이 확증이라는 단어를 ‘demonstrates’라고 옮겼습니다. 나타내보였다는 것입니다. demo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한 단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엡3:17하-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격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했다합니다. 1) Something to do, 할 일이 있어야 된다, 2) Something to hope, 소망이 있어야 된다, 3) Something to love,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온 세상을 방황합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더 좋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 저기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수도원적인 금욕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말씀에 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이론(Pascal's wager) : 철학자 파스칼Pascal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기하는 것’에 비교해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기로 내기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게 사실이고 그 하나님을 안믿는 것에 내기를 걸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기는 위험천만하고 거만합니다. 만일 이런 내기에 우리가 졌다면 사실을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고전15:13-20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는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4:25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초반에서 우리가 가질 정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평기사 즉, 평화, 기쁨, 사랑.. 의롭다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그 평안.. 환란과 시련 초차도 하나님의 연단프로그램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삶으로 인해, 삶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힘을 주는 것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기본정서가 되어야 합니다.

초청 : 만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 분을 내 인생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런 정서를 가지는 것은,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것들이 나와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잠간 기도하며 주님 생각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도 하였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마귀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소망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